



대한간호협회는 제1회 전국간호대학생 간호정책아카데미 워크숍을 개최했다. 미래의 간호리더 12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제1회 전국간호대학생 간호정책아카데미

간협, 간호의 미래 이끌어갈 대학생 리더 양성

간호정책에 관심 갖고 참여하고 행동하라
정치참여는 지역 국회의원 알기부터 시작

제1회 전국간호대학생 간호정책 아카데미 워크숍이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9월 15일 열렸다. 간호협회 정책아카데미소위원회에서 주관했으며, 전국의 간호대학생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간호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게 될 예비 리더인 간호대학생들에게 간호정책 및 관련 법률, 입법과정, 정치참여 등에 대해 이해하고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간호 관련 이슈 및 변화" 주제로 강연한 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전 국회의원)는 "간호대학생 여러분들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과 열정으로 간호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선배님들이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간호도 변화해야 하며, 간호의 본질을 지키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참여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간호 관련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올바른 의견을 알리는 것도 여러분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행동이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교육 4년 일원화, 간호 관련 의료법 개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추진과정과 향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통일간호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신경림 교수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간호체계 통합

방안을 준비하는 데도 간호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신경림 교수는 "무엇이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고, 간호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인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면서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서로 북돋우며 간호정책을 추진하고 헌신을 다해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정책과 리더십" 주제로 강연한 신혜경 간호협회 정책아카데미소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리더의 자질을 타고나지만 모두가 리더십을 개발하고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변화에 민감하면서 꾸준히 리더십을 개발하고 노력해야 하며, 실행하는 리더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간호정책 없이 임상간호의 발전은 없으며, 간호사의 정치참여가 간호의 발전을 이룬다"면서 "학생 때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정치·정책적 역할을 갖춘 리더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호정책이 임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주제강연을 한 고순희 포항대 간호학부장은 "여러분이 간호와 관련된 정책이나 뉴스를 접했을 때 '이것은 바로 나의 일이야'라는 주도적인 생각으로 참여하고 행동할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정책 현안을 여론을 통해 이슈화시키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특히 간호협회를 중심으로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인내심을 갖고 헌신하며, 주도적으로 나서 행동하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

가 원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호대학생들을 위해 '국회 입법과정' 및 '간호 관련 법률 및 간호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강연도 진행됐다.

"한국 간호역사부터 시작: 여성이 모자를 쓸 때" 주제로 강연한 이덕주 감리교신학대 교수는 한국 최초의 간호교육기관인 '보구여관 간호원양성학교'와 첫 한국인 졸업간호사인 김마르타와 이그레이스에 대해 소개했다.

이덕주 교수는 "근대 간호교육은 자신의 이름이 없었던 조선의 여성들에게 간호사라는 전문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봉건사회의 계급이 깨지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모자는 남성과 양반의 전유물이었던 시대에 간호사들은 모자(캡)를 쓰게 됐고, 여성이 모자를 썼다는 것은 양성이 평등한 사회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덕주 교수는 "여러분은 돈을 벌기 위한 직업 그 이상을 넘어 간호에 대한 철학적 의미와 소명을 가진 간호사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어떤 곳에서 일하든 선배 간호사들의 자긍심과 자부심, 사명감과 소명을 잘 지켜나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간호정책아카데미에 참석한 간호대학생들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트인 것 같아 뿌듯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간호협회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간호협회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대한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인증샷을 찍으며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충남간호사회 간호정책아카데미 개최

충남간호사회(회장 이순옥)는 2017년도 간호정책아카데미를 9월 8일 서산 르셀웨딩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서산·태안지역 간호사 85명이 참석했다.

이날 아카데미에는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국회 의정활동, 보건의료 및 간호 정책활동 전반에 대한 특강을 했다.

회원들은 간호정책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으며, 서로 교류하며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순옥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회원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간호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경기도간호사회 문화강좌 '내 마음 워크숍'

경기도간호사회(회장 김인자)는 회원들을 위한 문화강좌 '내 마음 워크숍'을 9월 1일 수원에서 개최했다. 회원 역량 개발 교육의 일환으로 열렸다.

간호사들은 사전에 온라인 심리검사를 실시했으며, 심리상태 진단서인 '내 마음 보고서'를 받은 후 문화강좌에 참석했다. 개인의 심리적 자원을 강화시켜주는 정신건강 컨설팅 프로그램인 '내 마음 워크숍'이 진행됐다.

간호사들은 "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한 시간이었다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간호사회는 문화강좌를 소규모로 진행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9월 28일 한 차례 더 실시할 예정이다.

최수정 기자 sjchoi@

노인간호사회, 경기도 요양병원 간호사 세미나

노인간호사회(회장 최귀운)는 '경기도 요양병원 간호사 역량강화 세미나'를 9월 8~9일 KNA 연수원에서 개최했다.

경기도간호사회(회장 김인자)가 공동주최하고 후원했다. 경기지역 요양병원 간호사, 노인간호사회 임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요양병원 간호조직 운영사례' '요양병원 환자안전 관리' '2주기 요양병원 인증평가 사례'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효율적인 간호인력 관리, 치매환자 케어, 간호수가 개발 등에 대한 분임토의가 이뤄졌다.

'죽음 앞에 선 인간: 미술을 통해 본 삶과 죽음' 특강이 진행됐

다.

최귀운 노인간호사회장은 "요양병원 간호사의 역할 정립과 요양병원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면서 "요양병원 현안 해결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자 경기도간호사회장은 "요양병원 인력관리 및 질 관리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KNA 면허신고센터 콜센터 1644-1755

강원도간호사회 회원 위한 숲치유프로그램

강원도간호사회(회장 손혜숙)는 회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숲치유프로그램'을 9월 6~7일, 12~13일 횡성숲체원에서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회원복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강원도간호사회 소속 등록회원 중 40~50대(6~7일) 및 60~70대(12~13일) 간호사를 대상으로 했다.

간호사들은 청정자연 속에서 내 몸에게 주는 산림치유를 통해 활력을 증진시키고 힐링했다. 신체자극 숲체조, 음이온 샤워 숲명상,



관계증진 아로마테라피 등을 통해 심신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했다. 숲과 계곡을 따라 설치된 데크로드를 산책했다.

참석자들은 "숲속에서 자연과 호흡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다"면서 "나 자신에게 진정한 휴식을 선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경남간호사회 어르신 행복잔치 봉사활동

경남간호사회(회장 이경옥)는 경상남도 여성단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 행복잔치'를 9월 9일 남해군노인복지관에서 개최했다.

경남간호사회 공동주최하고, 경남간호사회 분회인 남해군간호사회(회장 정현주)가 주관했다.

지역 어르신 200여명을 모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남해군간호사회 회원들이 손수 간식과 선물을 준비했다. 남해군보건소 건강홍보관을 운영해 혈압·혈당을 측정해주고, 건강생활 정보를 제공했다. 지역문화동호인들이 한국무용, 가요 등 다채로운 공연



을 선보였다.

남해군간호사회는 "노인들이 더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

대전·충청정신간호사회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정신간호사회 산하 대전·충청정신간호사회(회장 이옥자)는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작품전시회 및 나눔 한마당' 행사를 9월 8일 열었다.

정신장애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2000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회원들과 정신장애우들이 만든 공예품 등이 전시 판매됐다. 판매수익금은 정신장애우 재활 및 정신재활 훈련시설 사업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장기차량 시간을 통해 정신장애우들이 노래, 악기연주, 댄스, 마술 등의 공연을 선보였다. 재능에 성공한 정신장애우들을 포상하고 격려했다. '감정의 의미' 주제로 강상범 한일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이 특강을 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RNcard 사용백서

매년 대한간호협회 관련 결계가 10만원 이상이면 2만원이 캐시백 됩니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대상 RNCARD 서비스 www.nurselife.or.kr ☎ 1566-3137

29년 전통 대방열림고시학원

기술직 공무원 / 간호직 / 보건직 / 보건진료직 / 의료기술직 / 국가면허시험 / 간호사국가고사 / 위생사 / 연세대 RN-BSN

최다합격자 + 입소문, 합격생이 적극 추천하는 기술직 명문 학원



- ★ 대방열림고시학원의 강점 ★
- 과목별 수험생 선호도 1위 교수진 구성
 - 매년 기술직 공무원 최다합격자 배출
 - 수강생이 가장 많고 입소문으로 유명한 학원
 - 학원직장을 그대로 촬영한 최신 동영상 강의
 - 최고의 시설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
 - 최신 스마트폰 동영상 강좌 시스템
 - 체계적인 시스템 및 학원직장 연중 무중단 진행

매일 초 개강 / 수시 등록 가능 / 학원장의 연중 순환식 진행 이론반 > 심화반 > 기출문제반 > 단원별·모의고사 문제풀이반

2018 연세대 RN-BSN

최신 동영상 강의 서비스 중 노성신 교수

오직 연세대학교 RN-BSN을 위한 특화된 강의로 직장 및 동영상 강의 진행